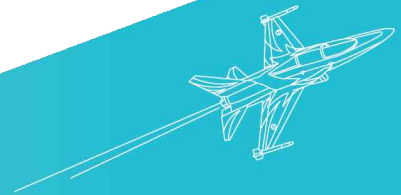


- 민선 8기 취임 1주년 -  
TV조선 네트워크 초대석 인터뷰





## 질문 1

취임 1년이 넘었습니다. 사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잘 마련하셨는지요?  
(주요 공약 이행 정도)

예, 제가 취임할 당시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소비감소로 힘들어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전 시민 1인당 3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사랑 상품권 200억 원 발행하여 지역상권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성개발혁신센터 유치,  
남일대리조트 3,000억 원 투자협약,  
우주항공물류센터와 수산물 가공공장 투자협약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라면

지난해 11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우주항공청의 입지가 우리 사천시로 공표된 것입니다.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성장할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 질문 2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담보상태로 국회 계류 중입니다. 연내 개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 설치가 반영되고 위치까지 ‘경남 사천’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조속한 우주항공청의 설치를 위해, 지금까지 수 많은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문가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누구나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의 여러 현안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시도되었지만 지금까지 실패했던 우주항공전담조직의 설치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우주강국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여야,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 대승적 판단을 간곡히 바라면서, 우리 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 3

미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인 휴스턴은 존슨우주센터를 만들고 연구진과 기술진 이주를 위해 주택 제공과 자녀 학교 교육, 배우자 일자리 제공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도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 계획인데 어떤 지원시책을 갖고 있는지요?

예, 우리 시는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정주여건을 책임질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에 착수하였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전담부서와 TF팀을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정주시설 구상과 지원시책 등도 빠짐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 교육, 문화, 주거 등 여러 분야에 획기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는 한편, 기존 혁신도시 지원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감한 이주지원 시책으로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우주항공청과 행정복합타운에 매우 큰 관심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과 함께 미래를 여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4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천에 항공MRO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도 항공MRO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항공정비업을 추진할 경우 사천의 항공MRO 사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천과 인천으로 분산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인해 두 지역 모두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핵심 인프라 사업의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물론 사천의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진행해 온 경남도와 사천시의 항공MRO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국가균형발전 저해와 함께 수도권에 치중된 일자리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이미 개정법률안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발표한 MRO사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질문 5

남해안 관광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 부산이 도로 개설 등 협력도 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예, 우리 시는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군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주요 승전지를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올 4월부터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천시를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이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광역시티투어 “남중권 누비GO”를 재개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 6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숙박시설을 늘려 체류형 관광으로 바꾸고, 스토리텔링으로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천시만의 관광 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해양관광 미래 전략은 체류형 시스템 관광입니다. 하나의 유명한 관광지만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년고찰 다솔사, 약사와불로 유명한 백천사, 별주부전 전설이 깃든 비토섬, 사천바다케이블카, 아쿠아리움, 대관람차, 자연휴양림, 남일대해수욕장까지 사천의 모든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시스템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5개 섬을 연결하는 삼천포 무지개 생태탐방로, 대교공원 주변의 아트뮤지엄, 노산 빛 공원과 목섬을 잇는 교량, 실안관광지와 남일대해수욕장 주변에 리조트형 호텔을 건립해 체류형 시스템 관광을 완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교통 수단으로 급부상하는 도심 항공모빌리티 등 첨단 우주항공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미래 해양관광 분야에도 선두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 7

인구 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절박한 고민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사천시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예, 인구감소 문제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미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저출산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체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SPP 폐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외부 유출, 주력산업인 항공산업의 침체 등으로 우리 시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 실정을 견주어 볼 때 절대인구의 증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과 앵커 기업 유치로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를 증가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생활인구의 증가로 활력이 넘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